

공직 유관단체 징계기준 운용 제각각

도감사위, 20곳 특별감사... 228건 행정조치 요구 감경·포상·가중처벌·채용요건 '주먹구구식' 운영

도내 공직 유관단체 20곳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 대부분 단체들이 징계기준 등 징계에 관한 운용실태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감사결과 조차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지난 3~4월 10일간 도내 공직 유관단체 20곳에 대해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체별 징계기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228건(기관주의 5, 개선권고 99, 통보 124)의 행정 조치와 함께 4명(훈계 2, 주의 2)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대상 단체는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을 비롯해 지방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제주의료원과 제주연구원 등 지방출연기관 12곳, 제주도체육회 등 특별공공법인 2곳, 기타 복지법인 2곳 등 모두 20곳이다.

도감사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징계의 종류와 효력, 의결방식, 실효성 등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징계의 종류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곳은 6종(견책·감봉·징직·강등·해임·파면)의 징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1곳 단체는 강등을 제외

하거나, 5곳 단체는 강등·해임·파면을 대신해 인사대기·감호봉·면직 등으로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효력도 징계별로 모두 제각각 적용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는 등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9곳 단체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징계시효 기준 미비점과 18곳 단체의 징계 감경·포상 제한 및 가중처벌 기준 불합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비위 행위자에 대해 적용하는 징계 가중처벌 기준이 없거나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위는 12곳 단체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어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규정만 반영한 4곳과 부과규정·기준 미반영 8곳 단체다.

아울러 도감사위는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직·전보 제한기준 마련 및 개정 필요(18곳 단체, 이하 생략)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 규정 미비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 미비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 필요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 ▷징계 외의 신분상 처분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미비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 및 조희방식 규정 미비 등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백금탁기자**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4·3특위 재구성 추진

전반기 특위 어제 마지막 회의 강철남 의원 '구성 결의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에 구성된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반기 4·3특위 재구성에 나선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 등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전

반기 4·3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오는 10월 16일부터 4·3특위를 재구성하고자 제안됐다.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1년간이며, 인원은 7명 이내다.

한편 전반기 4·3특위(위원장 정민구)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차 4·3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위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8년 10월 구성된 4·3특위는 그동안 4·3추진식 행사 평가보고회,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걸친 간담·토론회·보고회 등을 개최했다. **오은지기자**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12월 9~11일로 연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행사도 일정·장소 분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가 비대면 방식을 대폭 보강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사마쉬·알버트람)는 당초 오는 16~19일 열기로 했던 올해 엑스포 개최 시기를 조정해 개막식 등 주 행사를 12월 9~11일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결정이다. 엑스포 일정도 3일로 단축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개최기로 했다.

특히 컨퍼런스 등 주요 프로그램 개최 시기를 나눠 다양화하고 행사장도 제주와 서울, 미국 등으로 분산해 '다핵화' 시켰다.

엑스포의 주행사장인 ICC 제주에서는 전시와 체험, B2B, 일부 컨퍼런스 등이 정부와 제주도의 생활방

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다. 또 행사 시기의 '다핵화'와 개최장소의 '다핵화'에 따라 엑스포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요 컨퍼런스 개최 일정과 장소를 분산했다.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IEVE-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비즈니스 포럼'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과 실리콘밸리에서 동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등 스마트그리드, 전력시스템 등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인 'ICESI 2020'은 오는 16~18일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에서 열린다.

제5회 국제에너지컨퍼런스는 오는 18일 서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의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올해 행사는 서울대 전력연구소, 한국전력, 뉴욕주립대, 중국전기차100인회, 뉴욕주 스마트그리드협회 등이 공동 주관·주최한다. **백금탁기자**



태풍 휩쓴 밭... 양배추 재파종 9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농민이 태풍 피해를 입은 양배추밭에서 모종을 재파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산림훼손 단속반 운영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가 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주춤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올 상반기 산림피해 현황은 총 29건, 2.42ha(불법 산지전용 25건, 무허가 벌채 4건)이다. **오은지기자**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 52만8000t 내외 예상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 8월 456곳 대상 관측 조사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52만 8000t 내외로 예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9일 이같은 올해산 노지감귤 착과상황 관측조사(2차) 결과를 발표했다. 생산량은 최소 51만t에서 최대 54만6000t으로 예상됐다.

이번 관측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456개소 912그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올해 감귤나무 1그루 당 평균 열매수는 900개로 전년보다 36개(4%) 줄어들었지만 최근 5개년 평균 835개에 비해 65개(7.8%)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매 크기(횡경)는 42.7mm로 전년·평년보다 각각 0.3mm, 2.5mm 컸다.

제주시 지역은 전년보다 1.9mm 작고, 평년보다 1.2mm 큰 반면 비교적 착과량이 적은 서귀포시 지역은 각각 2.6mm, 3.6mm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6.7° Bx로 전년·평년보다 각각 0.1° Bx, 0.6° Bx 낮았고, 산함량은 3.14%로 전년보다 0.14% 낮았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생산 예상량은 11월 20일 적용시점으로 노지감귤 재배면적 1만4898ha 중 원지정비, 폐원 면적 등 제외한 1만4546ha 기준으로 분석했다. 향후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품질·수량 등 3차 관측조사를 실시해 최종 생산에 영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농기원은 감귤 수확시까지 비상품 감귤 따내기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환경교육센터' 내년 가동

제주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도 환경교육센터'가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기관·단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현재 도내 기관·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통합 지원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운영, 환경교육 정보의 종합적 관리·제공, 환경교육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고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신청 접수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오은지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그랜드보청기

2020년 9월 장애인보청기가격고시제 시행안내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얻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귀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오거리
● 국제보청기 (국가보증)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은행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